

감나무 재배 (1)

감나무는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잘 적응이 되어있어 우리에게서 친밀감이 많은 유실수로서 널리 심어 온 만큼 나무의 발육이 강건하고 각종 병충해도 비교적 강하여 그 재배법이 쉬울뿐 아니라 그 과실은 특히 단맛이 강하고 일반 과실에서 보는 신맛이 거의 없이 애용되고 있으며 과육중에는 비타민 C의 함량이 특히 많아 영양가치가 크게 인정되고 있다.

원래 감은 영어로 Persimmon, 또는 Date-plum이라 하며 학명으로는 Diospyros Kaki Linn f라 하여 강속(屬)의 많은 수 가운데 이 한가지 계통만이 식용으로 하고 있다.

감의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고 기후적으로 온대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않다.

감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잎은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며 꽃은 자웅이 같이 있으며 6월에 개화하여 장과(漿果)인 과실은 가을에 성숙한다.

감나무속은 세계적으로 약 190종이 분포되어 있다 하는데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주로 온대지방에 분포되고 있으며 주로 감나무, 고엽나무 유시(油柿) 등이다.

감에 대한 품종개량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단감에 대한 개량이 유명하다.

1. 분포와 적지

기후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는 분포하지 못

하고 주로 남한의 기후에는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여 동해안에서는 강릉지방에도 상당수의 감나무가 자연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는 지세가 험하지 않고 서북향이 막히고 동남향이 트인 곳이면 토심이 깊고 보수력이 알맞을 때 재배가 가능한 것이다.

1) 기온관계

감의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감(甘柿)의 경우 주산지의 연평균 기온이 11~15°C 여야 하고 적어도 1일 평균 기온 10°C 이상의 연간 일수가 215~240일에 달해야 한다.

겨울의 최저 기온이 -15°C 이하에서는 가지의 생장점에 상당한 동해를 받게 됨으로 특히 동해에 가장 약한 단감은 성숙기인 9월의 평균기온이 22~23°C 10월의 평균기온은 15°C 이상의 지방에서 좋은 감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감의 주산지 한강이남 지역을 경제적 재배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동으로는 강릉 서쪽으로는 강화, 평택, 당진, 예산 중부지방은 영동, 김천, 안동, 영주 등지가 주산지이고 남으로는 여러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2) 강우량

감나무는 발육시기에 따라 강우량에 따른 진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수이다.

감나무는 내수성에는 강한 편이나 내건성에는 비교적 약하다.

감나무의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 습기의 요

구도가 다른데 봄의 개화기에 강우량이 너무 지나치면 착과율이 불실하다.

또한 6월중에 장마가 계속되거나 폭우가 일어날 때에도 생리적 낙과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성숙기인 가을에도 비가 계속될 때에는 과실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봄과 가을에는 강우량이 적어 건조하고 성장기인 7~8월 고온기에는 강우량이 충분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감나무재배에 알맞은 강우량과 시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토양조건

감나무는 토질이나 지세에 대하여 그 적응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종이므로 입지에 대한 요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장점이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나무는 내습성에 강하고 내건성에 약한 하습대(夏濕帶)원산의 수종이므로 건조한 곳에는 재배하기 어려우므로 토질은 토양의 이학적인 구조보다도 오히려 토양의 수분 즉 보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토양수분의 함량한도가 복숭아나무는 13% 포도나무가 10%인데 비하여 감나무는 20%나 되므로 특히 내건성에 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나무 재배적지의 토양조건은 토층이 깊고 보수력이 강하고 흡수력이 용이한 토양이 좋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알맞은 토양은 경사지 토양보다는 평지의 토양이 좋고 평지에서도 사질토양은 보수성이 약하므로 불리하다.

따라서 보수성이 강한 점질토양이 나무의 생육도 좋고 과실의 착과율도 좋은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보통 일반유실수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보수성은 지하수가 높고배수가 불량한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배수가 불량한 곳은 지하 1m이상 깊게 파서 배수를 철저히 하고 보수력이 없는 사질 토양에는 개토를 하여 결점을 보완토록 한다.

따라서 점질토양을 선택하되 배수를 고려하여 토양에 자갈이 혼합된 곳 즉 사질토양의 하

천부근이나 산의 골짜기와 같이 수분이 풍부한 곳이 적당하다.

4) 일조량

감나무는 내음성이 비교적 강한 수종이지만 개화기에서 과일발육기인 5~6월에 일조량이 부족하면 감의 생리적 낙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중에는 비교적 비가 오는 날이 적고 일광이 강하여 착과율을 높이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발이 계속되며는 낙과현상이 일어나게 됨으로 토양수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숙기인 가을의 일조량은 과실의 품질 즉 크기와 착색에 영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을 기후는 충분한 일조량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

2. 감의 품종

감나무재배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과수로 취급 재배한 역사가 오래되어 지역별로 특성있는 품종들이 많이 있다.

감나무는 감을 식용으로 하는 것과 식용으로 하지 못하고 감나무의 접목시 대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식용감은 미감으로 박서 뽕은감(澗柿種)과 단감(甘柿種)으로 또한 분류할 수 있다.

진자는 과육에 탄닌산이 포함되어 그대로는 식용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후 식용으로 하지만 후자인 단감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재래종 감나무는 짧은 감이고 단감은 남부의 일부 지역에 재배하고 있으나 이는 외래종으로 수입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산과 외래 수입종에 대하여 그 주요한 품종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재래종 감나무

재래종 감나무는 맛이 뽕어서 그대로는 식용으로 할수 없으나 품종이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가) 고종시(高種柿)

경남지방이 주산지이며 재래종의 대표적 감나무이다.

나무모양이 원추형이며 크고 과실의 모양은 심장형으로 끝이 약간 뾰족하며 내부에 씨가 없는 것이 특색이며 있다하더라도 2~3개 정도이다.

완숙하면 붉은 색을 띠우며 크기는 250~260gr에 달한다.

현재 경남북지방에 재배되고 있으며 유망한 품종이다.

나) 반시(盤柿)

고종시와 같이 영남지방에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접시와 같이 납작한 것이 특징이며 꽃자리는 움푹 들어가 있다.

과피의 빛깔은 황홍색(黃紅色) 혹은 선홍색(鮮紅色)이고, 크기는 고종시 만은 못하나 200~240gr 정도로 품질이 아주 좋은 감이다.

씨가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경제적으로 유망한 품종이라 할 수 있다.

다) 청도감(淸道柿)

경남 청도지방이 원산이며 수세는 그리 크지 못하고 나무가 곧게 자란다.

과실의 모양은 네모진 평평함으로서 과피는 담홍색이고 과육은 단단하나 단맛이 강할뿐 아니라 씨가 거의 없어 품질로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다.

감 한개의 무게는 200~250gr 정도로 보통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짙은 맛을 제거하기가 쉽고 10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어서 중부지방에 재배되고 있다.

라) 사곡감(舍谷柿)

경북 의성군 사곡면 원산으로서 수관은 왕성하여 높이 자라고 감의 모양은 반시보다는 끝이 뾰족하나 평평하며 약간 네모가 난 것같이 보인다.

성숙한 때의 과피색은 등황색을 띠우고 과육이 단단하며 단맛이 특이하다. 씨도 거의 없어 감의 품종으로서 극상이라 볼 수 있다.

크기는 작아서 160~200gr 정도로 다산종이

여서 경제품종으로서 중부지방의 유망종이나 내한성이 약한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마) 분시(盆柿)

수관이 낮아 키가 작은 수종으로서 과실은 대략원형을 나타내나 조금 길쭉한 편이며 정부는 둥글며 그의 횡단면은 다소 네모진 모양을 한다.

과실이 큰 것은 200~250gr정도이나 작은 것은 160gr정도로 크기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완숙되면 과피의 색은 담황색을 띠우며 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씨는 3~4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중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바) 월하감(月荷柿)

수세는 보통이며 처음에는 곧게 자라다가 차차 벌어진다.

과실은 원형이며 끝이 다소 뾰족하며 성숙한 때의 색은 등황색을 띠우고 있으며 10월 중순에 성숙한다.

내한성이 강하여 중부지방에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건시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사곡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래종중 대표적으로 유망한 품종이라 볼 수 있다.

2) 수입품종

감의 수입종은 주로 일본종이 대부분이고 일부 미국수입종이 있으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유망시되는 몇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부유(富有柿)

껍지 얇고 단것이 특징이며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수세가 강하고 결실기가 빠르며 결과지가 생기기 쉽다.

우리나라에는 남해안지대의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이 흠이나 토지에 대한요구도는 크지 않다.

과실은 평평한 모양이며 크기는 200g가 보통이다.

격년 결실이 없고 풍다성인데 반하여 품질이 고르지 못하고 6~9월의 우기에 탄저병에

결리기 쉬운 결점도 있다.

나) 차랑(次郎柿)

일본 수입종이며 단감으로 수세가 다소 약하나 직립성이며 과실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과실은 열개(裂開)되기 쉬워서 부유시보다 재배되는 경향이 적은 것 같다.

그러나 부유보다 속기가 빠르고 바람에 강할 뿐 아니라 탄저병에 강하다.

또한 과육성장기에 낙과성이 적으며 격년 결실도 적을뿐 아니라 풍다산이며 부시보다 추위에도 강하여 재배지역이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다) 서조(西條 saijo)

일본산이며 짧은 것이 전자와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하다.

수세가 강하고 결과기가 늦으므로 수형은 자연형으로 넓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집약재배지는 없으나 장래가 유망시되는 품종이라 볼수 있다.

라) 갑주백목(甲州百目, koushu hyakume)

부사(富士)라고도 하며 짧은 감으로서 수세가 특히 강건하고 무게가 300gr나 되며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품종이라 알려져 있으며 재배지역도 넓다. 특히 연평균 기온이 4~5°C의 한대성 기후에도 성장하므로 추운지방에 적합하다.

그러나 따뜻한 지방에서는 생리적 낙과가

심하여 경제품종이라 할 수 없겠다.

과피가 등황색을 띠워 아름답고 외관이 단단하고 곱다.

전시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마) 버어지니아 감

미국 중남부지방이 원산지이며 Persimmon이라는 통칭으로 불리워진다.

우리나라의 감나무와 비슷한 교목으로 좌옹이주인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과실은 원형 또는 난형이며 과실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3) 품종선택상의 요건

이상에서 재래종과 외래종감의 품종상 특징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집약적으로 재배하려고 할때는 외래종에 치중하지 말고 재래종을 주품종으로 하고 외래종은 보조용으로 20~30% 정도 혼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재래종으로 경제성 있는 것은 사곡시, 반시고종시, 월하시 등이 주품종이 될 수 있고 단감인 부유시 차랑시의 외래종과 짧은 감인 부사시를 보조품종으로 식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대지방인 경남, 전남지역에는 단감인 외래품종을 주품종으로 식재하고 중부 지방에서는 단감은 심지 말고 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풍토종인 재래종 즉 짧은 감을 식재함이 유리하리라 믿는다.

재배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으로 미룬다. ■

★ 양계인의 벗

- 월 간 양 계 : (6개월분 : 1,200원, 1년분 : 2,000원)
- 월간양계합본 : (8. 9. 10권) : 권당 2,000원
- 최신가금요론 : (오세정 교수 著) : 2,000원
- 양계경영일지 : 권당 150원

연 락 처 : 서울 중구 양동 44~28 ☎ 3571~2
대체구좌 : 519272번